



II. 구속의 경륜

II.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은 두 가지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편의상 언약의 두 단계라 해도 좋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창세 전에 체결된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죄 지은 인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언약보다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의 무궁한 증진을 위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만일 인류가 죄를 선택할 경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하시며 나아가 온 우주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언약을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포괄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류 사이에 체결된 두 번째 언약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분으로 은혜의 언약(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은혜의 언약은 지상의 역사가 마쳐짐으로 완성되지만 구속의 경륜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또한 온 우주가 영원토록 새롭게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A.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 구속의 경륜

1. 구속의 경륜의 명칭들 : 영원한 언약, 자비의 언약, 평화의 의논(스 6:1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이 다 알려진 바 되었으며 영원한 시대로부터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였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불리워지는 바 이는 **구속의 경륜**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고안된 것이 아니요 “영세 전부터 감춰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 모든 민족으로 ... 알게(롬 16:25,26)하신 바 되었다” 9)

2. 성립된 시기 :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왔다.

3. 미치는 범위 : 우주적

4. 언약 대상 :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약속

언약의 주관자 성부

언약의 이행자 아들

언약의 돕는 자 성령

2)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희생에 초점이 맞춰짐

5.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

1)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생생하게 계몽하고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

2) 인간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에게 인간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3)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율법의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받도록 하기 위해

9) 그분을 알기 위하여(Ellen G. White), p. 366.

- 4) 하나님과의 분리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교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에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10)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므로 아버지와의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11)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12)

- 5)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즉 인류의 선두(인류의 우두머리, 대표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자리를 취하시고, 아담의 담보물과 보증인(인류가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흠이 없는 인간이 될 것이 되어서, 즉각적인 죽음에서 아담을 구하고 아담이 벌을 받아야 하는 지점으로 들어오시고, 첫 아담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서 시험과 심판을 견디셨다.

- 6) 그리스도는 체력, 인내력, 도덕적·지적 능력이 저하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같이 되셔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과 타락한 본성을 취하심으로 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의롭게(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셔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전된 본성(죄)의 연약성을 묻지 않으신다.

10) 부조와 선지자(A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67.

11) 상계서, p. 63.

12) 상계서, p. 64.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이니라” (롬 5:1, 3:31, 8:3, 4)” 13)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14)

“우리의 유전 및 실제적인 죄를 담당하시고 양도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실제적 및 유전적인 죄를 짊어진 하나님 없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육신을 쓰셨다는 것을 영원히 확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죄 짐을 지고 우리와 같이 무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히 2:13)고 부르짖으셨다.” 15)

“그리스도가 육체 안의 죄성을 만나 정복하시고 그의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육체 안의 죄성을 정복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

13) 상계서, p. 372.

14) 시대의 소망(Desire of Ages), p. 48.

15) A. T. 존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A. T. Jones, The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 p. 52.

다.” 16)

“우리의 육신을 그 죄성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눠 드렸으므로 그의 의를 우리의 육신에 나누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 . . 만일 인간의 자녀들과 같이 죄성을 가진 혈육을 쓰지 않으셨던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치나 합리성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담의 자손이었으며,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에서 죄가 시작한 곳까지 정복하셨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셨으며, 당신의 가슴에 죽음의 찔림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운명을 취하셨으며, 인간의 입장에서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셨다” 18)

- 7)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과 생명을 인류에게 주기 위하여
- 8) 아담이 잃어버린 인간 성전과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6. 희생의 결과

- 1)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
- 2) 죄의 성질, 율법의 불변성,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
- 3) 사단의 궤변의 부당함을 드러내어 반역을 처리함에 대한 우주적 옹호
- 4)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와 사단을 제거하여 우주를 영원히 정결하게 한다.
- 5) 아담이 잃어버린 나라와 통치권을 회복, 세상의 후사로 세움을 얻는다.
- 6)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자녀로 받아준다.

16) 상계서, p. 44.

17) 상계서, p. 45.

18) 리뷰 앤드 헤랄드(ElLEN G. White, The Review and Herald), 1893. 4. 18, pp. 241-242.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원 전에 체결된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들인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요 17:4)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인자로서 모든 언약의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요 17:24)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을 지켜” (요 17:4)온 자들이다.

B. 은혜의 언약(생명의 언약)

1. 아담과 아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

1)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와 체결한 언약 (창 3:15)이다. 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복귀시킨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¹⁹⁾

2) 믿음을 통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품성 형성이 가능하

19)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70.

도록 마련된 구원의 제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²⁰⁾

3) 희생 제도를 통해 죄의 흉악한 성질, 율법의 정죄, 죄의 용서, 생명을 희생하는 죽음,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였다.

4) 희생 제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 받고 구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다.

5) 희생 제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인간 성전이 회복되며, 죄짓기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의 후사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였다.

2. 아담과의 체결 이후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언약

1)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였다. 특별히 아들을 낳으려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였다.

20) 실물교훈(Ellen G.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p. 391.

2) 아브라함은 언약의 이행 조건으로써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야 하였다.

“아브람의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창 17:1~2)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뜻과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의 증거를 보임으로 성사되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 26:4~5)

3)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5)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 (출 24:3)

4)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히 8:9)

5)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중보자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

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 34:27)

3.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비준하신 다음에는 ‘새 언약’ (히 8:13; 9:12; 10:16; 13:12)이라고 부르신다.

2) 새 언약은 인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을 통해 율법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구세주를 의지해야 할 것과 그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 10:16-17)

3) 새 언약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이르러오며 죄 용서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율법과 일치된 생애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의롭다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에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4)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형벌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사형선고를 유예시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5)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죄 용서, 칭의, 성화를 얻을 수 있

음과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야 한다.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며,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다.”²¹⁾

“온 우주 앞에서, 율법의 형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룬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²²⁾

21) 영문 시조(Ellen G. White, Signs of Times). 1901. 7. 31, p. 482.

22) 리뷰 앤드 헤랄드사에 증거한 특별담화(Ellen G. White), 29.

